

“멍청한 놈과 미친놈이 만난 콘셉트야?”

‘먹보’ 비·‘털보’ 노홍철 짝꿍 조합 바이크 타고 떠나는 전국 여행기 “왜 친하지?” 김 PD 호기심에 탄생 “둘 모두 개인주의 강해 묘한 케미” 이효리·이하늬 등 출연 기대감 ↑

“멍청한 놈과 미친놈이 만난 콘셉트야?”

‘월드스타’ 가수 비(39)와 강렬한 개성으로 방송가의 ‘이단아’라 불리는 노홍철(42).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에 가수 이효리가 던진 한마디다. “우리 원래 친했다!”는 이들에게 MBC 김태호 PD가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11일 공개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먹보와 털보’는 “(둘이)도대체 왜 친하지?”라는 김 PD의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바이크를 타고 전국 곳곳을 누비는 ‘먹보’ 비와 ‘털보’ 노홍철의 여행기를 김 PD가 풀어낸다. 이효리의 남편인 가수 이상순은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8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우리도 ‘판’이 이렇게 커질 줄 상상도 못 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먹보’ 비·‘털보’ 노홍철의 케미

비와 노홍철은 이전에도 종종 바이크 여행을 즐겼다. 콘텐츠는 김 PD가 “올해 초 노홍철과 나눈 전화통화”로 시작됐다. 김 PD는 “노홍철이 ‘비는 월드스타 안에 가난이 있고, 신이 뭇은 겠는데 머리는 안 준 재미있는 친구’라 했다”면서 “이들의 우정에 호기심이 생겨 여행을 따라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예능 고정 출연은 처음인 비는 “그저



가수 비와 방송인 노홍철(왼쪽부터)이 8일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먹보와 털보’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개성 넘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즐거자”면서도, “스타 연출자 김 PD를 향한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노홍철은 “넷플릭스랑 한번 놀아볼래?”라는 김 P

D의 말에 움직였다. 그는 “짜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로 ‘엘리베이터남’이란 별명을 얻고, 그룹 방탄소년단이

나를 패러디해 해외에도 조금씩 알려졌다”면서 “‘먹보와 털보’는 월드스타로 향하는 발화점이 될 것”이라며 웃었다.

김 PD는 “두 사람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친해도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데, 그게 희한하게 웃기다”며 이들의 “묘한 케미”를 강조했다. 비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 죽어 패 잘 맞는다”면서 “내심 시즌2도 바라고 있다”며 ‘야심’을 드러냈다.

●이상순에 이효리·이하늬까지

‘깜짝 손님’도 재미를 더한다.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 비와 ‘의형제’를 맺은 연기자 이하늬 등이다. 음악감독 이상순은 “다른 콘텐트와 달리 모든 삽입곡을 새로 작곡”했다.

노홍철은 “늘 우리끼리만 다니다 손님들과 함께하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고 돌아섰다. 그는 “비가 이하늬가 오니 자연스럽게 그와 인연이 깊은 아내 김태희 이야기를 꺼내더라”며 “친구로서도 신선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먹보’답게 비는 끼니를 책임졌다. 맛집 여행의 묘미를 살린 비는 “갓 잡아 올린 지역 특산물의 싱싱함을 즐기는 게 맛 철학”이라면서 “음식에 대한 내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0년간 몸담아온 MBC를 떠나는 김태호 PD는 “회사 소속으로 마지막 오 후배들과 함께 뜨거운 기억을 담은 콘텐츠”라면서 “앞으로 넷플릭스와 해보고 싶은 아이템을 많이 준비해 놔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생충’ 주역들 스크린 각계약진

이선균의 ‘킹메이커’ 29일 개봉 송강호, 내년 초 ‘비상선언’ 공개 최우식 ‘경관의 피’ 박소담 ‘특송’ 내달 5일 동시 개봉 흥행 맞대결



영화 ‘기생충’ 주역인 배우 이선균·송강호·최우식·박소담(왼쪽부터)이 올해 말과 내년 초 저마다 주연영화를 내놓는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쇼박스·에이스메이커뮤비웍스·(주)NEW

영화 ‘기생충’의 주역들이 스크린에서 ‘각계약진’한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의 성취를 일군 ‘기생충’의 주연 송강호를 비롯해 이선균·최우식·박소담이 올해 말과 내년 초 각기 주연작으로 흥행 대결을 펼친다. 송강호는 전도연·이병헌·김남길·임시완과 함께 영화 ‘비상선언’을 내놓는다. 정확한 개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화는 내년 초 한국영화 기대작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물론 송강호를 비롯한 전도연과 이병헌 등 출연진에 거는 기대 덕분이다. 송강호는 사상 초유의 재난상황에 직면

해 무조건 착륙해야 하는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재난을 막으려는 형사 역을 연기했다. 관객 신뢰 속에 충무로 최고의 흥행 파워를 인정받아온 만큼 그의 새로운 면모에 대한 관객 호기심도 커지고 있다. ‘기생충’ 속 아버지 송강호와 함께 아들 역 최우식도 형사로 스크린에 나선다. 조진웅과 함께 ‘경관의 피’의 주연으로 1월

5일 이야기를 공개한다. 독보적인 수사력을 자랑하는 광역수사대 형사 조진웅을 비밀리에 감시해야 하는 형사이다. 앳된 얼굴 이면에 감춘 강한 내면을 드러내며 원작주의자의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기생충’에서 최우식과 남매의 연을 맺었던 박소담은 온전한 원톱 주연으로 우뚝 설 기세다. ‘특송’으로 ‘경관의 피’의 최우

식과 1월5일 흥행 맞대결한다. 뛰어난 특송전문 드라이버로, 예기치 못한 배송사고에 휘말리며 추격전을 펼친다. 티저 포스터에서도 실루엣의 뒷모습으로 등장해 카리스마를 드러낸다. 두 남매와 아버지 송강호로 상징되는 ‘갓지 못한 자’들을 비웃었던 ‘기생충’의 젊은 IT기업 CEO 이선균은 이번에는 선거 전략가로 정치판에 뛰어든다. ‘기생충’ 주역들의 대결이 포문을 열어 이달 29일 ‘킹메이커’를 선보인다. 후보 설경구를 도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전략가로, 정치적 후보자와 맞부딪치는 신념과 소신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한국영화 100년을 맞았던 2020년 세상에 나와 세계 영화계를 뒤흔든 ‘기생충’의 주역들은 올해 연말과 내년 초 극장가의 새로운 주역으로 장기를 뽐낸다. 감염병 확산세 속에서 개봉하는 만큼 한국영화의 활력과 흥행세를 이룰 선두주자로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BTS·오케, 美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시상식 ‘2021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다. 음악·영화·TV 시리즈 등을 아우르는 시상식은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열렸다. 방탄소년단은 5월 발매한 싱글 ‘버터’로 ‘올해의 그룹’(The Group of 2021), ‘올해의 노래’(The Song of 2021), ‘올해의 뮤직비디오’(The Music Video of 2021)를 수상했다. ‘오징어게임’은 ‘올해의 정주형 쇼’(The Best Show of 2021)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흠에 살리라’ 가수 홍세민 별세...향년 71세



1970년대 노래 ‘흠에 살리라’로 사랑받은 가수 홍세민(사진)이 지난달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71세. 8일 가요계에 따르면 홍세민은 지난달 30일 오전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2일 발인식도 엄수됐다. 1950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홍세민은 동양공업전문대를 졸업하고 1971년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1973년 발표한 ‘흠에 살리라’가 히트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어 ‘정에 울고 남에 울고’ ‘임 그리워’ ‘등대지기’ 등을 발표했다. ‘흠에 살리라’는 2006년 KBS 1TV ‘가요무대’ 선정 100곡 안에 들기도 했다.

머라이어 캐리, 캐럴 최초 다이아몬드 인증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사진)가 캐럴 ‘올 아이 윌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로 다이아몬드 인증을 달성했다.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해당 노래가 앨범 판매고 1000만장을 돌파해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크리스마 음원으로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은 기록은 머라이어 캐리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올 아이 윌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1994년 발매 이후 최근까지 크리스마스시즌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했다. RIAA 미치 클레이저 회장은 “음악사에 영원히 새겨질 업적”이라고 말했다.

신현준 갑질 의혹 제기 매너저 유죄 판결



배우 신현준(사진)의 ‘갑질’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가 신현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 매너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너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의 매너저로 일할 당시 비하와 욕설 문자를 받고, 가족들의 사적 요구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신현준은 이날 소속사 에이치에이필름을 통해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신실을 가려주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홍표, 비연예인 연인과 11일 웨딩마치



배우 김홍표(47·사진)가 11일 결혼한다. 소속사 리스펙트엔터테인먼트는 8일 “김홍표가 11일 서울 모처에서 6세 연하 예비신부와 백년 가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예비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표는 소속사를 통해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면서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해준 예비신부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김홍표는 1995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KBS 1TV ‘불멸의 이순신’, SBS ‘연개소문’ 등에서 활약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ee@donga.com

‘연말 장악’ 외화에 반격 나서는 K무비

‘스파이더맨’ ‘킹스맨’ 등 쏟아져 내달 韓영화 기대작 줄줄이 개봉

연말연시 극장가 흥행 경쟁의 대진표가 완성돼 가고 있다. 극장가 성수기로 꼽히는 만큼 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을 시작으로 22일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 그리고 이달 중 개봉을 예정한 ‘매트릭스:리저렉션’ 등 외화가 연말 극장가를 겨냥한다. 각 ‘스파이더맨’·‘킹스맨’·‘매트릭스’ 시리즈

로, 흥행 검증된 작품의 새로운 이야기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실제로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은 개봉 일주일 전인 8일 오후 3시 현재 65%에 육박하는 실시간 예매율(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기록하고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57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원작으로 연출한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내년 1월 대기한다.

외화 기대작이 12월 극장가를 장악할 기세라면, 한국영화는 1월 관객을 만난다. 이달 29일 ‘킹메이커’와 한지민·강하늘·



15일 마블스튜디오의 영화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을 비롯한 외화 기대작들이 연말연시 극장가에 내걸린다. 사진제공 | 소니픽처스

이동욱·이광수·고성희·임윤아 등 톱스타들이 나서는 ‘해피 뉴 이어’가 선두에 선

다. 이어 1월5일 ‘경관의 피’와 ‘특송’이 선보이고, ‘비상선언’과 흥행작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속편 ‘해적:도깨비 깃발’ 등이 개봉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처럼 외화와 한국영화 각 기대작으로 12월과 내년 1월 관객몰이를 노리는 구도여서 눈길을 끈다. 외화 대작은 할리우드 직배사들의 작품으로, 미국 등 북미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개봉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12월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확산세 여파로 개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채 일부 공개를 연기하기도 했던 한국영화는 이를 피해 1월 겨울방학 시즌 관객의 시선을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